일곱 대접 재앙과 현재의 삶

(계16:1~11)

1.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3.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4.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일곱 대접 재앙과 현재의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일곱 대접 재앙과 현재의 삶'
일곱 대접 재앙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일곱 대접 재앙을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의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서들을 보면서 제일 마음이 불편한 일이, 열심히 계시록의 말씀들을 각 절마다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도대체 현재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여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곱 나팔에서도 자연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앞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순서대로 재앙이 나타납니다. 일곱 나팔 때 땅의 재앙이 나타나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과 물이 쓴 물이 되고 오늘도 보면 우리가 읽은 4절까지 보면 그 순서대로 재앙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나팔 때에는 땅의 삼분의 일, 바다의 삼분의 일, 강과 물의 삼분의 일, 하늘의 별들 삼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주로 어떻게 설명 되느냐?
일곱 나팔 때에는 자연과 생태계에 임했던 재앙이 부분적으로 임한 것인데, 우리는 삼분의 일이라는 의미를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나팔이 듣게 한다는 의미로 결국은 들으라는 메시

지를 담은 자연 재앙의 사건들이었는데, 그 사건들에서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꼭 삼분의 일이라는 숫자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었다.
그 의미는 3이 전체라고 볼 때에 3분의 2인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된 증언이라고 믿는 그러한 입장을 고려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재앙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해석서들을 보면, 나팔 때는 삼분의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전면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나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첫째 대접 재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라고 나옵니다.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전 세계에 666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다고 해요. 독한 종기라는 것은 욥이 재산과 자녀와 아내와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이 온 몸에 악창이 나게 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렵고 괴롭고 아파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을 가지고 긁고 있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온 땅의 666표를 받은 사람에게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나옵니다.
둘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바다가 피로 변하는데, 그것도 생피가 아니라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되어버려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생각해봅시다.
이 각각의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곱 대접 재앙까지 가도록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보세요.
5대양 6대주라고 하잖아요. 5대양의 모든 바다가 다 시체의 피로 변해서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어서 5대양의 모든 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앞 동해바다, 서해바다, 태평양 전부 죽은 시체의 피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이 6대주 대륙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욥에게 있었던 악창이 나서 요즘의 발달된 의학으로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셋째 대접은 이 6대주 위에 있는 강과 물까지도 다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연재앙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고 하면 실제로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6대주에 악창이 창궐하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강과 물이 피로 변해버렸고, 그리고 바다는 시체에서 나온 피가 되어서 그 안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70억 인구가 한 달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한 달을 살아요?
강과 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내가 떠 놓은 냉장고의 물도 다 피로 변하고, 수돗물도 피로 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주일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자연과 생태계에 이대로 임하는 재앙이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재림과 동시에 지구를 포함한 우주 자체가 두루마리 말리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브라질에 있는 사람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동시에 본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찢어져 없어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판인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굳이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고, 땅에 악창이 나게 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해서 심판하시면 곧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못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게 문자대로 자연과 생태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하고 악창이 창궐하고 난리가 나면, 666표를 받지 않은 14만 4천명의 선민들은 어디서 무얼 어떻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모든 강과 물이 피로 변했는데 이들은 안 마셔도 됩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전에 휴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재앙을 이야기하는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겠습니까?
어차피 재앙은 666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15절의 경고는 666표를 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15절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라는 경고는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일곱 대접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일곱 대접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렇게 설명해 놓고 나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제일 못 견디겠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다가 붉은 피로 변하고 있지 않은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1900년 전에 이 계시록을 다 읽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제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어느 한 절도 어느 시대의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전체적으로 갖는 성격이 어떤 것이냐?
이걸 모르면 완전히 의미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나 혼자만의 설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팔 재앙은 삼분의 일이었고 일곱 대접 재앙은 전체적인 것이라고 해놓고 나가버려요.
언젠가는 바다가 죽은 자들의 피 같이 될 것이고 6대주에 악창이 창궐하게 될 것이라 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 이 성경구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버리고 말아요? 우리 시대나 그 전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려면 다시 한번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같이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이 있었잖아요. 일곱 나팔이 일곱째 인에 들어있는 것인데, 또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일곱 대접이 있어서 일곱째 나팔 안에 들어있으니까 결국은 다 일곱째 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그러니까 일곱 인의 성격과 일곱 나팔의 의미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일곱 인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때에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왜 재앙이 나타나느냐?
어린 양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사탄의 지배체제에 재앙이 내립니다.
왜 그것을 사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재앙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사탄의 지배체제와 인격적으로 동화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인격이 사탄의 지배체제에 완전히 동화되어 일체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체제에 재앙이 내리고 심판과 패배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게 나에게 재앙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재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갈 때에.

그럼 일곱 나팔은 뭐였습니까?
나팔이라는 것에 특수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은 돌아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서라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린양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나타나는 일은, 우리 마음이 이 땅이 좋아서 이 땅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기쁨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면서 땅에 붙어살다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니까 땅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하늘로 마음이 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땅에 붙인 상태를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붙이고 있는 이 땅을 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일곱 나팔의 재앙이에요. 땅을 치시면서 너희가 좋아하는 이 땅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있으니까, 땅을 좋아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나에게로 마음을 보내라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미군포로가 북한에 잡혀있습니다. 몰래 접선하는 스파이를 보내서 북한 지도와 무기를 보내서 그들이 탈출하게 하는 것이 인을 떼는 역사입니다.
그럼 나팔은 뭐냐? 북한의 지배체제로부터 포로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한 자체를 공습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들이 이북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포로들이 좋아하는 이북을 공습해버리는 겁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면 일곱 대접은 무엇이냐? 대접의 기능이 뭡니까?
나팔은 불어서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나팔의 존재 의미입니다.
대접의 존재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언가 소중하고 요긴하고 귀중한 것을 담는 것이 대접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담는 것이 대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접을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떨 때에 대접에 있는 것을 쏟아버립니까?
변질이 되어서 먹을 수 없거나, 쓸모가 없어진 물건들이 담겨져 있거나, 아까워서 버리질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많이 썩고 말았을 때에야 쏟아버리고 맙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사탄을 경배하면서 666표를 받아서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에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바람직한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변질 되었고, 너무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포로들이 사탄의 지배체제를 빠져나오게 해주셨고,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땅을 치시면서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그래도 안 듣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썩어빠지고 변질되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

을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의 대접을 엎어버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진노요, 재앙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일곱 대접 재앙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이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냐?
에덴의 타락을 생각해보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쁠 수 있게 만들어진 인간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설정해 둔 가짜 기쁨들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타락을 통해서 주어진 재앙은 뭐였습니까?
참 기쁨의 근원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내서 그 참 기쁨을 얻으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가짜 기쁨을 계속 추구하며 살고 있어서 자연의 재앙을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짐승의 666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뼛속까지도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질 때에 진짜 기쁘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질 때에 진짜 기쁘고, 이 세상에서 자식들이 출세 할 때에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뼛속까지 믿는 이 믿음을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의 마음으로 볼 때에는, 저렇게 가짜 기쁨에 속아서 쫓아가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짜를 추구하고 그걸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짜의 기쁨들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첫째 타락에서는 진짜 기쁨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두 번째 타락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제쳐버리는 두 번째 타락이고 더 깊이 들어가는 타락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타락의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때 이 타락에서는 가짜 기쁨의 근원을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돈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서 자식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인데도 뼛속까지 그것을 믿고 있

으니 고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기어코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두 번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타락에서는 그들이 뼛속까지 확신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가짜 기쁨들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의 일을 해내신 겁니다. 재앙이라고 하지만 그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십사만 사천 명의 숫자로 상징되는 선민들은 뭘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느냐?
앞에 15장에서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라고 나옵니다.
이상한 다른 기적이 보이는데, 일곱 대접 재앙이 주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나오고 그 유리 바다를 발로 딛고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분명히 선언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측근들, 즉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는 간격을 극복해서 발로 딛고 하나님의 마음속 생각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시편 23편의 노래를 날마다 신약 성경적으로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 대접 재앙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도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예수님 재림 직전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천 년 전에 죽은 사람에게도 일곱 인과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이 나타났다면, 천년이 지나도록 재림이 안 왔는데 어떻게 재림 직전의 사건이 되느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 바깥으로 나가서 잠자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는 것을 잠잔다고 하잖아요. 시간 바깥에 있다는 것은 천 년 전에 죽은 사람, 이천 년 전에 죽은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그들이 죽은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시간이 제로입니다. 시간 바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하나도 흐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인격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위를 바라보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부활하면 바로 죽을 때의 그 인격으로 그대로 만나는 겁니다.

이천 년이라는 시간대는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시간 밖에 있으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곱 인의 사건과 일곱 나팔의 사건과 일곱 대접의 사건들을 다 겪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 재앙이라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금도 바다가 피로 변해서 5대양 6대주가 완전히 종기로 가득차고 물과 강이 다 피로 변하면 아무도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십사만 사천 명도 재앙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재앙이 선포된 뒤에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자들이 나옵니까?
이것은 아직 재림 이전의 이야기예요. 새 예루살렘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그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재림 직전에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으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제로의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행동이니까 기다린다는 의미도 없지요.
우리가 이것을 다 시간과 공간의 차원 그것을 초월한 공중의 차원 그 위에 있는 하늘의 차원을 우리 언어로 이해하려니까 이렇게 힘들죠. 그러나 좀 차분히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틀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일곱 대접 재앙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 하나 살펴보자는 것이죠. 일곱 대접 재앙은 오늘날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십사만 사천 명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일곱 대접 재앙 속에서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의 불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께 깨어서 다가갈 수 있는 신앙을 고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